폭넓은 교육통한 비판능력의 고양

학술보고

미국의 대학교양교육 필요성 대두 배경과 과정

1919년 콜롬비아대서 교양교육 처음 시작

거듭된 검토통해 대학내의 위상 재정립

미국의 대학교육이 일반문화를 가르치는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을 강조해야 하느냐, 아니면 특수 문화를 가르치는 전문교육(Specialized Education 또는 Professional Education)을 강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20세기 초에 모든 분야가 전문화 되어가는 미국 대학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교양교육에 대한 운동은 전문교육을 지나치게 중시하는데에 대한 반발로 씌트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일반대중은 대학교육이 참된 인간성을 결여한 고도의 지식만 소유한 전문가들만 많이 생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시회적 배경에서 성장한 교양교육의 주장은 첫째, 넓은 범위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데 있다. 학생들은 그들의 지적 훈련을 한가지 학문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 문제들을 해결 할 때 여러 학문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학문 분야를 폭 같은 비중을 가지고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데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양교육은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생활을 위하여 교육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교양교육의 주된 관심사는 능률적인 시민, 여가선용, 원만한 가정생활, 그리고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교양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같은 교양교육의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1919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그 유명한 'Contemporary Civilization'이라는 과목을 개설하면서 부터였다. 그 이후 교양교육은 콜롬비아 대학의 'Contemporary Civilization' 과목과 'Humanities'과목으로 상징되어지면서 미국고등교육에서 그의 자리를 굳히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46년에 콜롬비아 대학은 그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30년간의 여러가지 사회변화를 얼마나 수용해 왔는지를 다시 분석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Harry Carman 학장이 주동하여 그동안 미국에서 중등교육의 변화, 대학기능의 팽창, 교수기능보다는 연구기능을 중시하게 되는 대학가의 추세, 새로운 지식과 학문 영역의 급성장, 그리고 미국사회 구조의 변화등에 대하여 콜롬비아대학이 얼마나 민감했으며 이들을 어떻게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반영시켜 왔는지를 자체평가하는데 주력하였다. 이것이 소위 훗날 'Caran보고서'로 알려진 그 유명한 'College Program in Action'이다.

이 보고서에서 콜롬비아대학은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Contemporary Civilization, Humanities, The Sciences를 통하여 교양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타당성을 다시 인정하였다.

콜롬비아대학으로서는 1946년이후 다시 처음으로 20년만에 교양교육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한 결과가 1966년 Daniel Bell의 보고서인 'The Reforming of General Education'이다.

시카고대학에서의 교양교육에 대한 개혁은 1929년 11월 Robert Hutchins총장이 그의 시카고대학 총장 취임 연설에서 대학의 목표를 교양교육에서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대학교육은 직업을 위한 훈련 또는 직업에 대한 사전 예비 훈련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교양교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카고 대학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반드시 배워야만 할 여러가지 지적 분야에서 공통된 체계의 지식들을 명확히 해 주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는데 이것이 시카고 Plan으로 알려졌다.

이 시카고 Plan에 의하면 선택과목이나 전공과목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대학의 교육과정은 전부 교양교육을 목표로 하여 고정되어 있었다.

하바드 대학에서는 1945년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라는 보고서(후에 그 책의 겉표지 색깔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The Red Book'으로 알려졌음)를 발표하여 미국 대학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운동에 큰 자극을 주었다.

미국의 역사상 교양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가지 모델은 콜롬비아, 시카고, 하바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다. 미국의 수백개 대학들이 대부분 이들 세가지 모델중 한가지를 선택했거나 또는 수정 보완해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교양교육을 이해하는데 이 세 대학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미국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위상을 굳히려는 노력은 ① 1919년의 콜롬비아대학에서의 Contemporary Civilization, ② 1930년대 부터 Robert Hutchins총장의 주도 아래 20여년간 계속된 시카고대학에서의 시카고 Plan, ③1945년에 하바드대학에서 발표한 유명한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라는 보고서에 이어 ④ 1966년에 콜롬비아대학에서의 교양교육에 대한 재 검토의 결정체인 The Reforming of General Education으로 이어져가고 있다.

송 미 섭
〈사범대교수·교직과〉

◇…대학생활 협동조합의 설립의의에 대하여

자주적 공동체 문화의 토대

대학 생활양식의 올바른 변화모색

인간과 자연의 조화된 생활양식 창출

자본주의 사회의 잘못된 사회구조는 대학사회에도 그 영향을 미쳐 개인주의, 이기주의, 숭미사대주의, 물질향락주의 등 인간 본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잘못된 의식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먹는 것, 입는 것 하나하나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기 보다는 자본의 논리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머리로는 우리의 것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그 생활에서는 미국식 문화, 외새문화가 판을 치고 물질중심의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운동(이하 대생협운동)은 이런 일상적인 생활속에 녹아들어 있는 잘못된 논리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청년학생이 갖는 진보적인 사상의식이 단지 머리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시절 뿐만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올바른 사상관점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상 생활을 소재로 하는 사상개조운동이다.

대생협운동은 대학생활의 제 문제를 누가 시혜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진 광범위한 대중들이 스스로의 자각과 집단적인 힘에 의해 풀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학구성원들이 주인정신을 체화하여 모든 사회생활에서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자본의 논리인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 과생된 이기적 생활양식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먼저 고민하는 조직활동을 통하여 집단주의가 몸에 체화된 자주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상개조운동인 것이다.

또한 대생협운동은 주체들의 자발적인 대중운동이며, 대생협이라는 일정한 체계와 형식을 가진 조직을 구성하여 집단적인 힘을 표출하는 조직운동이다.

한마디로 대생협은 대학내 만연해 있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활풍토를 고쳐 공동체적이고 서로 협동하는 생활을 지향해 나가는 의식개혁 운동이며, 또한 학생들이 주인으로 참여하여 우리 생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조그마한 사업 하나에도 애정을 가지고 실천하자는 실천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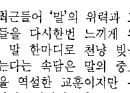
대생협운동이 가지는 의의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대학내 생활양식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사람을 경쟁생활로 내몰고 가진관마저 어기적인 사고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는 대학사회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대생협은 학원의 왜곡된 생활 양식을 바로잡고 개별 주체간의 협동을 통한 공동체 생활 질서의 실현을 중심목표로 하고 있다. 협동을 통한 공동체 생활질서는 첫째, 학원주체(교수, 학생, 교직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주체의 자주관리로 막아내고 학원대중으로부터 창출된 물적 잉여를 다시금 대중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제반 복지시설을 주체의 의지에따라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경제공동체를 실현함과 동째로, 대중의 소비성향을 부추기는 대규모 상업광고의 무분별한 범람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학문화의 종속성과 향락주의에 대하여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민족자주적인 생활문화와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환경오염과 과괴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생활속에서 종이 한장, 나무 한그루를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정착시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듯 대생협은 대학생활 주체의 생활양식을 협동하는 집단의 생활양식으로 변화시키며 자주적인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송 성 훈
〈수원대학생활협동조합(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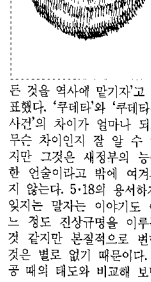
책임의 담 넘는 찰라의 언변



최근들어 '말'의 위력과 묘미들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말의 중요성을 역설한 교훈이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언술을 보면 내뱉은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격언이 더욱 적확할 듯 싶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의 차이는 특히 정치권의 미묘한 문제들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하물며 그 말이 공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대통령의 경우라면 그 무게와 파급효과는 두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과거에서 그들이 했던 말을 되새겨보면 깡통과 같이 요란하기만 했던 기억들만이 떠오른다.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불신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일단 의심이나 한꺼풀 넘어 이해하려는 도습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지난주 김영삼대통령의 취임 1백일 기자회견이 있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12·12, 5·18, 5·16 등 일련의 사건들이 조금이나마 재조명을 받은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결과는 뒤끝이 씁쓸하기만 하다.

새정부는 12·12사태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5·16은 '역사를 후퇴시킨 명백한 쿠데타'이고, 5·18은 '잇지는 말되 용서하고 모든 것을 역사에 맡기자'고 공표했다. '쿠데타'와 '쿠데타적 사건'의 차이가 엄마나 되고 무슨 차이인지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새정부의 능숙한 언술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5·18의 용서하자, 잊지는 말자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진상규명을 이루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6공 때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들이다. 많은 정확한 의사표현과 전달을 위해 있지만 때론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가리는 애매모호함도 가지고 있다. 말이 있으면 책임도 따르는 법이다. 애매모호한 말은 책임을 회피할 수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말과 공표는 그래서 더욱 그 공언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혹자는 정치인은 고장난 에어콘이라고 비꼰다.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말의 신뢰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말이다.

외국의 한 수상이 한 이야기가 있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후세를 걸로 잊지 말라. 그러나 연설을 할 때는 결코 후손을 생각하지 말라.' 연설은 바로 그 당시 청중들에게 인기만 끌면 된다는 태도를 비유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말의 애국자만 있는가? 말과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때이다. (송보영 기획부장)

학술단신

한국교육개혁과제 심포지움 단계별 주제발표와 토론형식

한국교육문제연구소(마포구 합정동 354-2)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한국교육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연구소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조용환(숙명여대)교수의 사회로 천주교 종로교회(종로 4가)에서 마련되는 이번 토론회는 각 단계별 교육개혁과제를 각 주제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개최되는 것으로 주제별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기초발제:세계의 교육동향—이규환(연구소 소장, 이대 교육학과) △주제1:대학교육의 개혁과제—송병순(영남대 교육학) △주제2:중등교육의 개혁과제—이인규(성동기계공고 교사) △주제3:초등교육의 개혁과제—박춘근(상암국교 교사) △주제4:유치원 교육의 개혁과제—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학)

주제 발표 후에는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광재 교수 언론학회장에 피선

본교 이광재(정경대 신문방송학) 교수가 지난 29일 중앙대 대학원 건물에서 개최된 '한국언론학회 봄철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의 회장경선에서 제21대 회장에 피선되었다.

민족생활문화 '체험교실' 우리것 통해 서구문명 극복

민족생활문화연구소는 오는 12, 13일 양일간 '민족생활문화 체험교실'을 실시한다.

서구문명의 유입에 따라 희박해져가는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서구문화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우리 문화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교육기간 중 이기연 민족생활문화연구소 소장의 '왜 우리 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강연과 실습을 비롯해 전통먹거리, 입거리, 놀이, 수련법 등 문화전반에 걸친 강연과 함께 실습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도 홍주 등 우리 술 시음, 우리 과일을 이용한 화채 만들어 시음하기 등 음료수에 대한 실습도 행해질 예정이다.

(문의:744-5606)

지수걸 교수 저서 비평회 '일제하농민조합운동'주제로

역사문제연구소(중구 필동 2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연구소 강당에서 지수걸(서원대 역사교육학) 교수의 저서 '일제하 농민조합 운동연구'에 대한 비평회를 갖는다.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사 연구의 방법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비평회는 윤해동(역사문제연구소)씨와 전우용(역사문제연구소)씨의 발표 후 이준식(연대 박사과정 사회학)씨와 박명림(고대 박사과정 정치학)씨, 저자 지수걸 교수의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277-4622)

민언협 '모니터교실' 개최 방송주제로 모니터 실습

민주언론협의회(마포구 아현 2동)가 좋은 언론, 바른 언론을 위한 '제1기 모니터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실시되며 방송의 특성과 이에 대한 이해에 관한 강좌와 보도, 교양,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등의 모니터 실습이 있을 예정이다. 〈학술부〉

공인회계사전문
하/계/방/학/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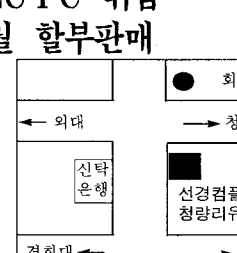
종 합 반	7/2 ~ 8/19
경 영 학	목 금 오후 7:00 - 10:00
경 제 학	토 오후 3:00 - 6:00 / 일 오전 10:00 - 1:00
상 법	월 화 오후 7:00 - 10:00
회 계 원 리	평일반/주말반/오전반
중급회계원리	수 오후 7:00 - 10:00 / 토 오전 10:00 - 1:00
중 급 회 계	평일반 / 주말반
재 무 회 계	목 금 오후 7:00 - 10:00
원 가 관 리	목 금 오후 7:00 - 10:00
H · 원 가	토 오후 6:40 - 9:40 / 일 오후 2:00 - 5:00
세 법 개 론	평일반/주말반/낮반
세 무 회 계	수 오후 7:00 - 10:00 / 토 오후 6:40 - 9:40
재 무 관 리	토 오후 3:00 - 6:00 / 일 오전 10:00 - 1:00

신촌회계학원
상담전화:364-2866 FAX:393-6309
신촌로타리와 연대입구 사이 마사공원내 있음

개강 6.21 (수시접수)
컴퓨터 자격증 시대 시작!

대학 재학생을 위한
컴퓨터취업반 연수생 모집
비전공자가 컴퓨터 전문가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컴퓨터를 제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취업 경쟁에서 상대적 비교우위확보(전공+컴퓨터)!

목적: 재학기간 중에 컴퓨터 기초에서 전문과정까지 숙지한 전문 SE인력로 배양하기 위함.
교육과정: 전산기초 OA과정, 순서도,필수언어과정 전산이론Ⅰ, 전산이론Ⅱ, 시스템분석 및 설계 AS/400 EOL, AS/400초급과정, AS/400고급과정 MIS관련 업무교육, PROJECT실습 (AS/400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IBM중대형 컴퓨터명입니다)
수강방법: *상기교과 과정을 개인별 스케줄에 따라 등록수강 *학기중에는 1시간 내외의 출석수업과 통신교육을 방학중에는 출석집중 훈련함
특기사항: *전 과정 이수자는 AS/400 전문기로 취업추천 *교육과정 단위로 등록하므로 교육비 부담 감소 *OA과정 이수자, 기사 자격증소지자, 전산학전공자에 대해서는 수강과목 면제혜택 부여 *방학특강 수강 후 취업반에 연계수업가능
※ 방문하시면 상담과 관련 자료를 드립니다.
KBC 컴퓨터교육센터
☎ 842-7973,841-1201
(2호선 구로공단 전철역 건너편 중외제약옆)
(방학특강) OA반, 언어반, IBM중대형반, 기사준비반

OPEN
선경컴플라자 청량리 유통점
◈조립제품 스스로 견적,즉석조립
◈국내 메이커및 DEC PC 취급
◈삼성 전제품 12개월 할부판매
◈부품취급
· ISA,VESA BOARD …
· QUANTUM,MAXTOR,SEAGATE …
· REAL VISION24,TVGA,한글마당 …
· 각종 MONITOR
· 각종 CPU
· 각종프린터 및 소모품일체


TEL:962-6765
컴퓨터 종합백화점